



◇수양대군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17세의 어린나이에 사약을 받고 죽은 단종의 장릉 전경.

영월 보덕사, 단종 추모 영산대제 복원

4월6일 단종제 때 봉행기로 군과 합의

6·25 동란으로 사라진 전통 재현

17세의 어린 나이에 사약을 받고 죽은 조선 단종(端宗)의 능침사찰이었던 영월 보덕사가 50여년 만에 영산대제를 연다. 영월 보덕사주지 삼혜는 단종제 기간

인 4월 6일 오후 2시 12시에 입금이 되었으나, 수양대군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청령포로 유배되었다가 세조 3년(1457년) 사약을 받고 죽은 단종의 장릉(莊陵)

앞에서 영산대제를 봉행하기로 최근 군과 합의했다.

조계종 법패단 일각스님 팀이 봉행하는 국태민안과 민족화합을 위한 영산대제는 대형 괘불을 모시고 시련, 권공, 축원, 시식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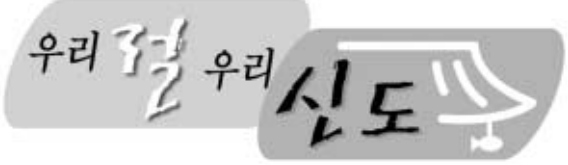
보덕사 주지 삼혜스님은 "단종 제사 때 보덕사에서 재물을 준비하여 재를 지내 왔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번 영산대제

최는 6.25동란으로 사라진 옛 전통을 재현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1456년 단종이 노산군으로 이곳에 유배되자 사찰명을 노릉사라 개칭한 보덕사는 장릉이 사찰인근에 조성되면서 장릉 수호사찰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조선 시대 사전을 헌납 받았으며, 주지는 권승이 파견됐다는 기록이 있다. 이번 전통에 따라 최근에도 군의 주요 회의에 보덕사 주지가 참석하고 있다.

한편 68년 의상조사가 창건한 보덕사는 발본산 지척사였다. 1161년(고려) 운허선사와 원경국사가 극락보전, 사성전, 침운루 등을 증축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보시로 부처님 가르침 실천

전주 금선암 최순이 신도회장

"강 보살 이번엔 봉사활동 같이 갈 수 있지?" "김 거사 지난번은 너무 수고했어, 이번에는 좀 쉬고 다음번에 꼭 도와줘." 9일 일요일을 끝낸 전주 모악산 금선암 신도회장 최순이(진여심) 보살이 일일이 불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인가 적고 있다. 최 보살이 쟁기고 있는 것은 다음 주 증인초등학교에서 열리는 무료급식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신도들의 명단. 이처럼 꼼꼼히 챙기는 최 보살이 있기에 결식아동들은 따뜻한 점심을 먹을 수 있다.

최 보살이 금선암 신도가 된 것은 40년이 훨씬 넘었다. 그 때 최 보살은 시어머니가 보시했다는 풍경을 구경하러 들렀다가 금선암의 더덕대감이 됐다.

"젊을 때는 참 철이 없었죠. 절에 와도 늘 집일만 생각했죠." 40년 금선암 신도생활 중 최 보살이 가장 아쉬운 것은 불교 공부를 나들이 해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수가 넘어져야 전복불교대학을 다니며 불교가 자기 가족만 잘되라고 기도하는 종교만이 아님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신도들 봉사활동 열성적인 견인차

무료급식등으로 사찰 홍보도 적극



◇금선암 신도들과 함께 무료급식 자원봉사를 하는 최 보살(오른쪽 세 번째).

올해 나이 일흔 한살의 최 보살은 머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으며 편히 지낼 나이가 훨씬 지났다. 하지만 최 보살은 누구보다 먼저 노인 잔치, 밀반찬 배달, 장학금 지급, 무료급식사업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나선다. 이런 최 보살의 열성이 있기에 금선암 신도라면 누구나 한 가지씩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탕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들었을 때입니다. 불자라면 욕심을 버려야 하는 데 그러는 사람이 버리는데 보시만큼 좋은 수행법이 없다고 권해주셨죠." 이때부터 최 보살은 보시를 실천해보자는 서원을 세우게 됐다.

때 마침 금선암 주지 덕산스님은 미륵향도 4대 실천강령을 만들고 사회봉사를 시작하려고 했고 최 보살은 스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일년에 두 번째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잔치를 펼치고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급식을 하는 등 금선암하면 자원봉사 사찰이라는 등식을 인근 전주 불자들에게 알려나갔다.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웃들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는 최 보살. 최 보살은 미륵향도가 되어 용화세계에서 미륵부처님을 만나고 싶을 뿐이다.

전주=강유신기자



추천의말 덕산스님 금선암 주지

나·이웃 동시에 생각하는 불자

의 신도들은 최 보살을 정신적 지주로 삼고 있습니다. 최 보살은 돈독한 불자로 초하루기도, 일요일 법회 등 사찰 행사에는 한 번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수행과 보시행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 보살처럼 나와 남을 동시에 생각하는 불자가 많았으면 합니다.

'한민족 도보 대행진' 3천km대장정



원공스님(행진단 고문)과 전인구 예비역 소장(행진단장)을 비롯 1천여명이 참가하는 한민족 도보대행진 'PEACE KOREA'이 30일부터 7월 7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우리 삶의 터전인 한반도의 환경보호와 남북한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인 이번 평화대행진은 대한적십자사 환경정의시민연대 중앙일보 주최로 30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공원 문화의마당 6번 야외무대 앞에서 발대식을 갖고, 3천km 대장정에 돌입한다.

행진단은 서울을 출발해 서해안→제주도→남해안→동해안→금강산→155마일 민통선→서울까지 걸으며, 쓰레기 줍기 환경보호운동과 식량난으로 기아와 질병의 위기에 처해있는 북한 어린이 돕기 행사를 개최한다. 북한어린이 돕기는

한반도 환경보호

평화 메시지 전달 예정

적십자사 ARS(060-700-1005)와 온라인(농협 035-17-002187)으로 후원이 가능하며, 의약품과 의류 학용품 등 물품도 접수받는다. 문의전화 02) 3705-3657-9

행사의 취지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전국구간(300명), 대구구간(200명)지역구간(희망자 전원)으로 나눠 참여가 가능하다.

김원우기자

한인 100주년 기념 LA관음사, 찬불기도 음악회 열어

"불교의 역동적 모습, 전통문화 알리는 계기"

한인이민100주년 기념 찬불기도 음악회가 16일(현지 시각) LA 존 부로우(John burroughs) 중학교에서 불자 및 교민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LA관음사주지 도안주최로 열린 찬불기도 음악회는 인연스님의 법패를 시작으로 범종과 법고가 어우러지는 산사 예불의식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현대적인 찬불가 그리고 락 그룹사운드의 연주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현대, 한국 불교와 미국 문화가 만나는 공연이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승무 예능 보유자 이재주 씨와 대금 연주자 덕현스님을 비롯한 불교 연합 합창단 60여명이 본국에서 초청

되었으며, 재미국악원, 남가주 불교연합합창단, 한누리사물놀이, 그룹사운드 메이데이가 함께 무대를 꾸몄다. 또 재미국악인 이명숙, 종매스님의 대북 소리와 사물놀이, 가야금 병창 등이 소개되고, 현지 교민 3세로 구성된 그룹사운드 메이데이의 공연과 한국에서 온 불교 합창단과 남가주 연합 합창단이 함께한 찬불 음악은 존 버로우 극장을 환희의 세계로 몰아넣었다. 무대의 마지막은 1500여명의 출연진들이 함께 고향의 봄, 아리랑 등을 함께 합창하며 2시간여에 걸쳐 진행 된 공연을 마무리했다.

김원우기자

승가 왕조 이후 많은 불교사찰들이 강제로 힌두교 사원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도 강조되고 있다. 그 중 인도의 대표적 인 사원인 오리사주 뿌리 소재 자그나트 사원. 사후 100년이 지난 지금도 힌두교도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스와미 비베카 난다의 어록 "자그나트 사원은 옛 불교사찰이며, 우리(힌두교도)가 접수하여 '힌두화' 시켰다..."라는 대목은 자그나트 사원이 불교 사찰이었음을 말해준다.

인도 뿌네=이지는 통신원

인도 힌두교 사원 불교 성지로 확인

최근 인도에서는 유명 힌두교 사원들이 과거에는 불교 성지, 또는 불교 사원이었다는 주장들이 잇달아 제기됐다.

최근 런던에 소재한 '암베드카르 백주년 기념재단 (Ambedkar Centenary Trust)'의 소장인 크리슈나 감레(Krishna Gamre)씨는 아요디야가 부처님께서 우

기안거를 보낸 사찰이 있던 곳이라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몇가지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다. 그는 사르나트 등 불교성지를 발굴하기도 한 인도학의 대가 커닝햄(Sir Alexander Cunningham)의 조사 기록과, 현장의 <대당서역기>의 관련부분을 증거로 제시하였다.

『국내 명상 최면의 최고 권위자 법운선생 특별지도』



원장 법운

- 現 '삼경그룹' 고문
- (주)허조건설 고문으로 재직
- (주)오조코스메틱 대표이사



지도교사 박봉순

※ 저 서 ※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 「명상 최면 지도서」양성 과정

우주에 충만한 생명 파동 에너지와 우주의식(자연의식)의100% 활용에 도전한다. <명상 최면 지도서>가 되면 인간의 내면에 숨어 있는 놀라운 잠재능력과 우주의식을 끌어내어 자신과 타인의 영적(靈的) 문제를 손쉽게 해결하는 영식(靈識)과 능력을 획득하게 되고 자신은 물론 타인의 영적 진화와 발전을 돕는 <영혼 명상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

- ※ 명상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나 빙의령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 ※ 전생퇴행 명상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 되어져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 하는 기법
- ※ 원격제령 명상최면 - 제 3자가 명상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 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하는 기법. 명상 당시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 수 있음.

[특전] 동방 명상 전생연구학회에서 명상 최면 지도사 자격증 발급

- 전 문 반: 일주일 과정(참가비 150만원)
- 평생연구반: 일주일 과정이 끝난후 정기적으로 보충교육 실시 (참가비 300만원)
- 적용분야: 일반적인 최면수업외 **태아령** **소상령** **빙의령** **축생령** **구병시식** 천도 및 제령
- 적용대상: 스님, 법사, 상담가, 기공수련가(수업을 끝마치신 많은 분들이 감탄하고 있습니다)
- 특강일시: 수시접수

2002년 12월11일 부산시 사하구에서 발생한 "조카딸 유괴 살해 암매장 사건"을 단 한번의 명상최면으로 해결하다.

◆ 수업에 참가하신 많은 스님들이 영가천도 및 제령부분에서 영가와 직접 대화가 이루어져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들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십 수년씩 기공 공부를 하신 분들이 수업을 끝내고 난 후 지금까지 채울 수 없었던 부분을 정리하고 완성 시킬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 뛰어난 영매자들이 수업을 참관하고 난 뒤 자신의 보호령과(몸주신) 기타의 영적존재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해오고 있습니다.